

메시지 4  
교통 — 교회생활의 실재

성경: 요일 1:1-3, 7, 행 2:42, 고전 1:9, 10:16-17

- I. 사람의 몸에 피의 순환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순환이 있다. 이 순환을 신약에서는 교통이라고 부른다. 이 교통이 교회생활의 실재이다 — 요일 1:3, 7.
- A. 교통은 공통 참여, 공동 참여이다. 따라서 교통을 한다는 것은 단체적으로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 빌 4:14, 2:1.
  - B. 교통이란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사실상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 요일 1:1-3, 7.
  - C. 유일한 교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처신해야 한다 — 롬 8:2, 6, 10-11.
  - D. 사도들과의 교통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 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 행 2:42, 요일 1:3, 딤후 1:9.
- II.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받았습니다.” — 고전 1:9.
- A.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이신 그리스도께 동참하고 참여하며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
  - B.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은사 있는 어떤 사람이거나 지나치게 강조된 어떤 교리나 어떤 특별한 실행에 의해서도 빛나가지 않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C.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들어가게 하신 교통이시다 — 고전 1:9.
    - 1. 우리의 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교통은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인격이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받은 것은 그분 안으로 부르받은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교통이시기 때문이다 — 고전 1:30.
    - 3. 우리는 이 인격 안으로 그리고 그분의 교통 안으로 부르받았다. 즉 우리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받았다.
    - 4.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교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만을 선호하는 것이다.
  - D. 놀랍고 뛰어난 상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통은 사실상 그 영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우리의 체험에서 아들의 교통은 그 영의 교통이다 — 고후 13:14, 빌 2:1.
  - E. 교통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한다 — 고전 6:17.
    - 1.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과 한 영 되는 것이 뒤따른다 — 고전 1:9, 6:17.
    - 2.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러한 하나 안으로 부르받았다.

3.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합하는’이라는 말은 1장 9절에 나오는 ‘교통’과 동의어이다. 합하는 것이 사실상 교통이다.
  4.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분을 체험한다.
- F. 교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어떠함을 누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빌 1:18, 2:17-18, 28, 3:1, 4:4, 10.
1.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상호성 안으로 부름받았다.
  2. 이러한 교통은 놀랍고 우주적이며 상호적인 누림을 함축한다. 즉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시며, 믿는 이들이 서로서로를 누리는 것이다.

### III. 교통은 하나와 관계있다 — 고전 1:9, 6:17, 10:16-17, 12:20.

- A. 몸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곧 순환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 안으로 이끈다 — 엡 4:3-6.
- B. 이 하나는 그 영의 하나라고 불린다(엡 4:3). 이 하나는 또한 몸의 하나이다 — 엡 4:4, 고전 12:12-13.
- C.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곧 몸의 하나, 모든 성도들 사이의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 D. 유일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인데, 이 하나가 바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켜 주는 유일한 터이다 — 엡 4:3-6.

### IV. 십자가의 체험은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교통 모두를 깊게 해 주고, 우리가 몸의 생명을 알고 몸의 교통 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 롬 6:6, 갈 2:20, 마 16:24, 고전 12:27.

- A. 우리는 신성한 교통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깊게 해 주는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하다 — 고전 1:9, 24, 2:2.
  1.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교통은 피상적이다. 오직 십자가만이 신성한 교통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와 주님과 교통과 우리 서로 간의 교통을 깊게 할 수 있다 — 롬 6:6, 갈 2:20, 마 16:24.
  2. 교통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자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십자가가 없다면, 자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없으며 참된 교통도 없다 — 고전 1:9, 24, 2:2, 갈 2:20.
  3.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로 제거하도록 각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a.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자아에 적용하는 것이다 — 눅 9:23-25.
    - b.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마음이 상한다. 우리에게 그러한 강한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 c. 우리가 강한 자아를 갖고 있어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의해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는 참된 교통을 가질 수 없다. 수평적인 교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 16:24.
- B. 십자가의 체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한다 — 롬 6:6, 8:13, 12:4-5, 고전 1:18, 23-24, 2:2, 12:12-14, 27.

1.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처리하여 우리가 몸의 생명을 실지로 알도록 한다 — 마 16:24-26.
2.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몸의 생명을 산다면, 우리는 몸의 교통을 누릴 것이다 — 갈 2:20, 5:24, 빌 3:3, 골 1:18, 고전 10:16.
3. 우리와 머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인 반면에, 우리와 몸의 관계는 교통의 관계이다 — 골 2:19, 요일 1:3, 고전 10:16-17.
  - a. 교통은 우리가 제한적이고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함축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서 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b. 교통은 우리에게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롬 12:4-5.
  - c.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이 처리될 때에만, 우리는 몸 안에서 살고 몸 안에서 교통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교통의 중요성을 보지 못할 것이다 — 갈 2:20, 5:24, 빌 3:3.
  - d.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교통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 고전 12:14-27, 요 15:4-6, 살전 3:8.
4. 일단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기만 하면, 우리는 몸의 생명을 알고 교통의 중요성을 볼 것이며, 이 교통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이다 — 롬 6:6, 12:4-5, 고전 1:9, 2:2, 10:16-17, 12:14-27, 요일 1:3, 7.

#### V. 교회들 가운데 있는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다 — 고전 10:16.

- A.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께 오직 한 몸이 있고, 이 몸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된다는 진리에 근거한다 — 엡 1:22-23, 4:4, 계 1:11.
- B.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몸이 있고 몸 안에는 오직 하나의 생명의 순환만 있다. 이 순환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다 — 엡 4:4, 요일 1:3, 7.
- C.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그’ 영의 순환, 곧 흐름이다.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순환하실 때,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순환한다.
- D.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일부이고, 몸의 교통은 우주적으로 하나이다. 교통 안에는 어떤 분리도 없다 — 계 1:11, 2:7상.
  1. 어떤 교회나 지역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2. 어떤 교회나 지역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는 어둠과 혼란과 분열과 죽음이다.
- E.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우리는 몸의 교통을 실행하러 오는 것이다 — 고전 10:16-17.
  1. 주님의 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a. 우리는 모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떡, 한 몸이다 — 고전 10:17.
    - b.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한 몸으로 조성된다.
  2. 우리가 몸의 교통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상 위에 놓인 떡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 F.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을 구성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는 조직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있을 뿐이다 — 빌 1:5.
- G.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재이다 — 고전 1:9, 12:12-13, 27.